

■ 환갑 맞은 해남군 화산면 '광복절 축구대회'

“명절엔 못와도 8·15엔 고향 찾지요”

“추석 때는 못 와도, 광복절에는 모두 고향에 한데 모여 축구대회를 연지가 벌써 60년이 됐습니다.”



해남군 화산면민들이 지난해 광복절에 화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광복절 축구대회를 하고 있다.

42개 마을 16개 팀 참가

올해 대회에는 화산면 42개 마을에서 16개팀 320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1946년부터 열려... 올해 60회 대회

출향인·주민 4천여 명 '단합의 장'

현재의 축구대회는, 광복 후 결성된 화산면 대동청년단이 '광복의 기쁨을 나누고 주민 단합을 위해' 마을별 축구대회를 연 것이 계기가 됐다.

이제는 대부분 4~5월에 '면민의 날' 행사를 열지만, 우리 화산면은 광복절에 면민의 날 행사를 치를 정도로 주민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다

관련 자료 없어 아쉬움

가 될 수도 있을 듯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60년 역사를 가진 이 축구대회는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납골당에 투자하세요” 노인상대 100억 사기

김승연 한화회장 서울대병원 임원

광주경찰, 40대 영장

납골당에 투자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노인을 속여 100여억원을 챙긴 다단계 업자가 붙잡히는 등 최근 노인 상대 유사수신행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원을 돌려주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명씨는 노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오면 교육·출근수당 등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상소1부(김득환 부장판사)는 14일 보복형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병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for KCC and other services with logos and text.

사냥개 풀어 멧돼지 잡은 50대 무죄 파기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위난 아니다'

사냥개를 풀어 야생 멧돼지를 포획한 50대에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가 사냥개 등에 의해 30~40분간 대치하고 도망 다녔다 이씨와 친분이 있는 정모씨의 총탄에 맞아 위험성이 저하된 정황 등으로 멧돼지를 총기로 쏘는 것은 이씨의 행위는 위난(危難·위급하고 곤란한 경우)을 피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복절 '태극기 달기 운동' 확산

광복절을 맞아 '오프·온 라인'상에 태극기를 게양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운동이 벌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재활용 수집 등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태극기 690개를 공동 구입, 입주민들에게 무료로 전달했다.

시위 현장 인근 산업용 폭약 발견

진도경찰 유출경로 추적

어업권 보상 등을 요구하는 주민 집회장 인근에서 산업용 폭약이 발견돼 경찰이 유출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행진을 하던 중 풀밭 사이에 있던 폭약 5개, 한 묶음을 발견하고 경찰에게 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for '국비지원수강생모집' (National Support Student Recruitment) with details on courses and fees.

Advertisement for '7·9급 공무원 대특강' (7th and 9th Grade Civil Servant Special Lecture) with exam dates and contact info.

Advertisement for '김영면임·PMS학원' (Kim Myeong-myeon PMS Academy) for nursing and medical studies.

Large advertisement for SK Telink services, including VOIP and internet services, with a table of service rates.